

01 교회소식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3주년 기념성회

땅 끝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한 이재록 목사 연합대성회 3주년 기념성회가 지난 15일 있었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치 않으며 그리스도의 교양을 갖춰 주변 사람들도 배려하고 섬기게 된다.

03 기획특집_ 만민의 비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전

인간 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자 하나님 마음을 위로할 건축물이 될 대성전에 담긴 하나님 사랑의 심리를 알아본다.

04 간증

우리 가족이 행복한 이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온 가족이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매우 행복하다는 최영희 권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51호 2012년 9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이스라엘에 넘쳤다! 크리스털포럼 주최, '이재록 목사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3주년 기념성회



14개국 2천여 명이 참석한 '이재록 목사 연합대성회 3주년 기념성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감사 이수진 목사①, 3주년 기념성회②, 파워 워십팀과 송윤희 집사의 공연③, 말씀을 경청하는 참석자들④, 치료받은 간증자 행렬⑤,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⑥).

이스라엘 예루살렘 ICC에서 크리스털 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에서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과 함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담대히 선포했고 이는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중계됐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하며 주최 측에서는 매년 기념성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3주년 기념성회는 이수진 목사(우리 교회 교역자 회장)를 감사로 지난 9월 15일 이스라엘 하이파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핀란드, 코트디부아르, 중국, 그루지아, 팔레스타인 등 14개국에서 메시아니즘을 믿는 정통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일반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파워 워십팀과 송윤희 집사의 공연은 아름다운 무용과 다국어 특송(히브리어, 러시아어, 링갈라어), 회중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더해줬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

대변인인 레아 웹토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최측 크리스털 포럼은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감사 이수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수진 목사는 '믿음'을 주제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대해 설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님 이름을 높이는 'JESUS' 곡으로 찬양을 인도한 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기도를 해 주었다. 시력이 회복되고 척추, 무릎, 다리 통증과 암이 치유되며, 목발을 버리고 걷는 등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마이테스(39, 여) 성도는 심장판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사라졌고, 야끼르(33, 남) 형제는 근육 이상으로 어릴 때부터 혼자 걷지 못했는데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다.

크리스털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14일에는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나라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쉬도트만민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수진 목사는 '육과 영'을 주제로 강연한 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적인 말씀에 믿음을 점검하고 성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며 감사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즉석에서 지·협력교회로 가입했다. 또한 베들레헴 목회자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원활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교회연합집회에서 이수진 목사는 '열 므나 비유'를 통해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긴 선한 종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속히 영으로 변화될 것을 전했다.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스페트라나(74, 여) 성도는 10년간 고통받던 무릎관절염이 치유됐고, 릴리(55, 여) 성도는 시력이 좋아져 안경 없이도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상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5)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족하다.

레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반면에 번번이 무례를 범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겨 질병, 사고 등 갖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간혹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것처럼 일일이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정감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허물없는 사이도 있겠지만 사랑 마음을 백 퍼센트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은 친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 성전에서 무례히 행하는 경우

예배 도중에 나가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명 때문에 나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자리에 앉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도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마음 다해 드려야 합니다. 찬양이나 기도 시간은 물론 헌금이나 광고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외에 찬양예배, 구역예배 등을 드릴 때에도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성전이란 예배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속한 마당과 부속 시설 등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어디에서든지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다투거나 사업이나 오락 등 세상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물을 훼손시키거나 낭비해서도 안 되며, 헌금봉투를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이라 해서 함부로 말을 해 상처를 주는 일도 많습니다. 가족 또는 절친한 친구에게 무례히 대하다 보면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지요. 또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해서 무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반말을 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인사법이나 대화법 등 나라나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무례히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자칫 예의 없는 행동과 무례한 말로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진정 사랑이 있다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값비싼 보석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취급하겠습니까? 행여 잃어버릴세라 흠집이 날세라 조심조심 다루겠지요. 하물며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소중히 대하겠습니까?

더구나 오늘날에는 부모나 스승 등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에게도 중심에서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세대가 변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32에 '너는 선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사람 사이에도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니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서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그 언행을 보면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나 상사 앞에서 조는 것도 무례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판생각을 하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

다. 이처럼 정성껏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 지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시간에 늦는 것도 큰 실례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늦는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예배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떠돌고 장난하는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 예배 시간에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 행위는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성전 부속 사무실에서 인터넷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으면서도 매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명백한 매매입니다.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마 21:12~13). 제사에 쓰일 제물이라도 용납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개인의 필요를 따라 매매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고 식사하거나 일을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배움과 지식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 예를 지켜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요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엔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대성전 건축

하나님께서서는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대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다. 대성전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전 세계 만민이 모여 경배하는 곳이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커다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성전이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만민의 비전, 대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 섭리와 그 규모를 살펴본다.

인간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 대성전 건축의 숨겨진 비밀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윗 왕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심히 사랑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이웃 나라에서까지 가장 좋은 재료들을 모아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 왕이라도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의 손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대에 짓도록 하셨다.

하물며 마지막 때에 인간경작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성전 건축은 어떠하겠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을 이뤄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 자녀들이어야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대성전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경작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건축물이다. 대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격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무수히 나왔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기초석이 있음을 나타내는 열두 개의 큰 기둥

대성전은 열두 개의 큰 기둥이 맨 바깥에 둘러 있으며 그 사이에 각각 일곱 개씩 작은 기둥이 세워진다. 그 수를 합하면 총 96개가 된다.

우유 빛의 맑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된 열두 개의 큰 기둥 맨 위에는 대리석으로 조각된 꽃들이 기둥을 둘러가며 장식된다. 꽃잎은 다섯 개이며 꽃술 부분, 곧

꽃의 한 가운데에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해당하는 보석들(계 21:19~20)이 박혀 있다. 조명을 받을 때마다 오색찬란한 광채를 발하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있는 일곱 개의 작은 기둥

대성전의 큰 기둥들 사이에 세워진 각각 일곱 개의 작은 기둥은 하나님께서 대성전을 통해 이 땅의 인간경작을 완료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기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처럼, 또한 프리즘을 통해 퍼져 나오는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처럼 눈부신 빛들이 전체적으로 흘러나오도록 기둥 전체에 장치돼 있다.

두 번째 기둥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을 나누신 둘째 날의 과정을 상징하는 장식과 무늬들이 그려진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기둥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조각으로 나타낸다.

세 번째 기둥에는 아름다운 포도넝쿨과 열매를 비롯해 아름다운 식물들을, 네 번째 기둥에는 해와 달, 별들을 새겨 넣는다. 다섯 번째 기둥에는 각종 물고기와 비둘기를 비롯한 새들을 새겨 넣고, 여섯 번째 기둥에는 소나 양을 비롯한 육축을 새겨 넣되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조각해 넣는다.

이처럼 창조된 순서에 맞춰 문양을 새겨 넣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오묘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일곱 번째 기둥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땅의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황금과 온갖 보석들을 사용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는다.

이때 기둥 안에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 황금색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나타내며 그 위쪽으로 권능의 빛보다 위 단계인 영광의 빛과 창조의 근본의 빛을 나타내되 가장 아름답고 밝은 흰 빛의 조명을 이용하며 전체적으로 각종 장식과 무늬를 표현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을 떠올리게 하는 대성전의 열두 문

대성전의 열두 개 큰 기둥 사이에는 하나씩 해서 열두 개의 거대한 문들이 있다. 이 문들은 각각 양쪽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한쪽에 하나씩 문 높이만큼의 크기로 두 천사가 조각돼 있다. 마치 새 예루살렘 성문(계 21:12~13)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 문과 문 사이의 벽면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해진다.

지름이 600미터인 원형의 대성전, 지붕은 십자 모양으로 자동 개폐

대성전은 둥그런 원모양으로서 가장 바깥쪽에 세워진 열두 개의 큰 기둥 중 서로 마주보는 기둥에서 기둥까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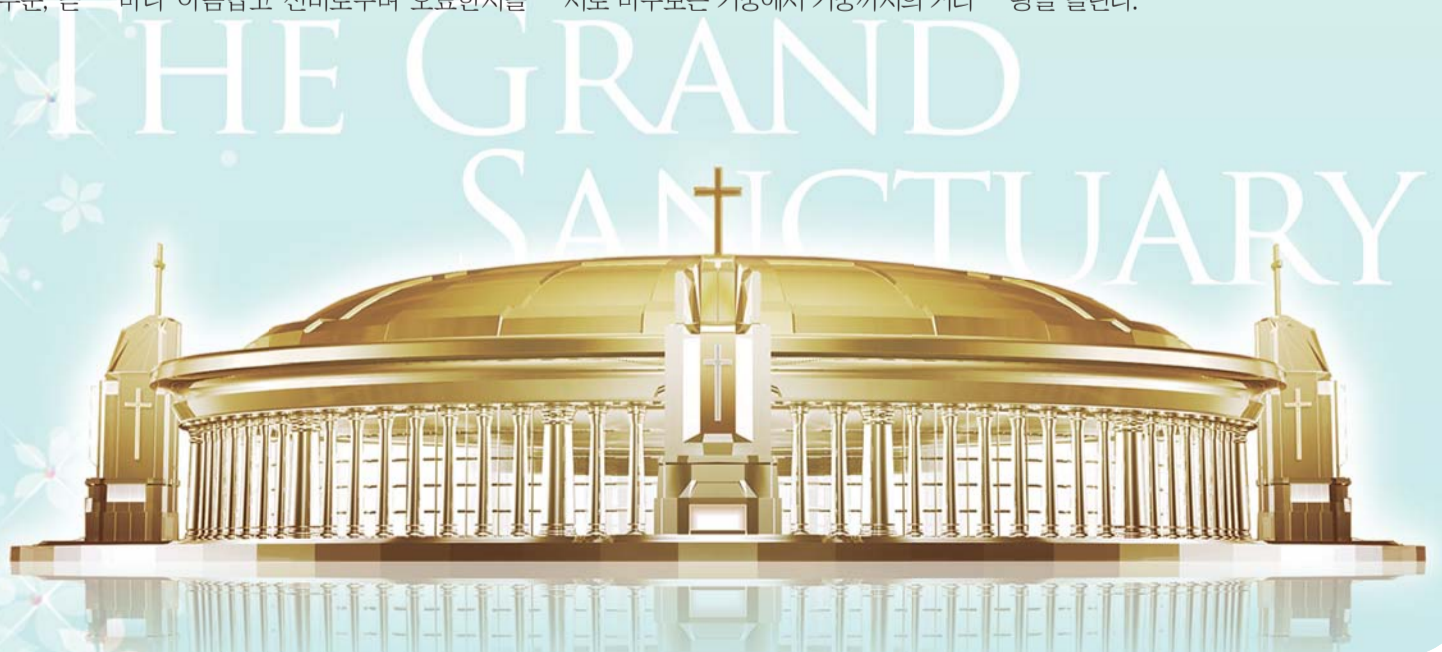
가 원의 지름으로 600미터이다. 또한 지하 깊이가 20미터, 지상 높이가 40미터로 건물 전체 높이는 60미터이며 원형의 대성전 중앙 맨 위에는 10미터 되는 높이의 십자가 탑을 세워 전체 높이가 70미터이다. 원형의 대성전 지붕은 십자 모양으로 자동 개폐된다.

대성전은 영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육의 공간에 나타내는 기념물

하나님께서서는 인간경작을 계획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경작을 마무리하시기까지 모든 눈물과 희생, 인내의 열매로 얻으신 참 자녀들을 통해 대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따라서 대성전에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 준다.

권능을 사모해 크리스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곳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깨닫고 그 권능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 더구나 방송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온 세계로 전해지니 대성전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높일 대성전 건축, 만민은 신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엡 4:13)을 채우며 더욱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 섭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행군할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비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최영희 권사 (1대대 5교구, 2-5여선교회)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에서 3남 5녀 중 일곱째로 태어났습니다. 유교 집안이었지만 큰 언니의 영향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마냥 좋았지요.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협심증을 치료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3년 초,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님은 멀리 서울에서 오신 이재록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개척한 바로 그 다음 해의 일이지요.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각각 열린 집회에서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거동할 수 없어서 등에 업혀온 환자가 걸어서 돌아가는 등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치료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언 은사를 받는 등 성령 체험을 했지요. 그 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제 영혼은 갈급했고, 결국 상경하게 됐습니다.

1984년 초, 그토록 사모하던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니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된 일이 있었지요. 추석을 맞아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답답하고 쿡쿡 찔렸습니다.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지경까지 됐지요. 병원 진단 결과 협심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재록 전도사님께 기도받으면



예배 특송 중인 하모니팀의 장다엘 형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단에서 해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받았는데 언제인지조차 모르게 깨끗이 치료 받았습다.

결혼 후 범사에 사랑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니

1989년 12월 23일 남편 장영규 장로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룬 뒤에도 저는 주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4남 1녀의 맏며느리로서 교회 사명으로 바쁜 중에도 결코 시댁이나 집안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이 주일인 경우에는 전날 미리 충남 홍성에 있는 시댁에 내려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새벽같이 일어나 생신 상을 차려드린 뒤 정리까지 마치고 부지런히 서울로 올라와 예배를 드렸지요. 명절이나 김장철, 가족 모임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집에서 동서들과 사누이의 산후 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니 어느새 가족들도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조금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다. 온 집에 충성하고 싶었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지요.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장다엘, 21)과 딸(장다슬, 19)을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

셨습다.

그런데 딸 다슬이가 생후 7개월이 됐을 때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다. 손톱을 깎아주려고 보니 왼손 엄지손가락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1일 작정 기도를 통해 자녀를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한 제 모습과 자녀를 핍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 사명에 소홀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로 회개를 했지요. 그러자 다슬이 손가락은 거짓말처럼 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 신앙은 한층 새로워졌고, 그 뒤 성가대와 기관장, 조장, 진주중앙단 등 정성껏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2009년 초, 저희 가정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저와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지요. 혹여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자녀라고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다음은 제가, 그 다음은 아이들이 차례로 눈물로 회개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함께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가족을 섬기며 본이 되어줬습다. 아이들에게는 같은 눈높이로 대해주며

친구가 되어줬지요. 현재 남선교회 조장과 기관장, 재정위원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는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는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아침예배 후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아들은 대학 입학 후 하루 금식, 3일 금식을 수시로 하며 마음의 성결을 사모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또한 예능위원회 찬양팀 '하모니팀'에 소속되는 축복과 학교에서는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군악대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은 군 생활에서도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신속히 변화돼 목자의 힘이 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딸 역시 빠르게 성장해 '하라', '하지 마라' 잔소리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사춘기 없이 잘 자라준 딸은 고3선교회 회장, 나사렛 성가대, 단비중앙단 총무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크고 깨끗한 마음을 이뤄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지요.

감사하게도 지난 '제19회 만민학생찬양제'에서 금상을 수상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앞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오직 한 곳,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돼 함께하는 이 길, 저희 가족 모두 행복이 넘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19회 만민학생찬양제' 금상을 수상한 장다슬 자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릉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